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상상국어평가연구소

적중 분석

■ 적중 사례 모아보기

영역	제재(문항)	상상국어 적중 문항	적중 내용
독서	[1~3] 「동형이의어의 개념과 특징」	『이매진』 3호 4주차 DAY 5	지문 적중
	[4~9] 「법 모델과 임대차 보호법」	『이매진』 1호 3주차 DAY 2 『이매진』 2호 4주차 DAY 2	지문, <보기> 적중
	[10~13] 「수소 운반체를 활용한 수소 저장 및 운송 방식」	『이매진』 1호 4주차 DAY 4 『이매진』 4호 4주차 DAY 3	지문, 선지 적중
	[14~17]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	『이매진』 4호 3주차 DAY 1	지문 적중
문학	[22~26] 동유가	이매진 3호 1주차 DAY 3	작품 적중, 선지 적중, <보기> 적중
	[27~30] 김진옥전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1차	작품 적중
		이매진 3호 3주차 DAY 4	작품 적중, <보기> 적중
	[31~34] 역사	이매진 2호 2주차 DAY 1	작품 적중, 선지 적중
언어	[35 ~ 36] 단어 + 음운 (용언의 활용과 음운 변동)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3차	내용 적중
		상상국어 시즌2 모의고사 2차	선지 적중
		상상국어 N제 언어와 매체 16일차	내용 적중, 선지 적중
	38번, 문장 (관계 관형사절과 동격 관형사절)	상상국어 N제 언어와 매체 21일차	내용 적중

독서: 독서론 [1~3] 「동형이의어의 개념과 특징」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매진』 3호 122쪽_4주차 DAY 5

독자가 글에서 읽은 단어의 의미를 확정하지 못하면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발음이 같고 의미가 다르면 동음이의어라고 하듯,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표기가 같고 의미가 다르면 동형이의어라고 한다. 동형이의어는 여러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독자가 글을 읽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독자가 ㉠ 동형이의어를 읽고 떠올린 여러 의미 중에서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 것으로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어 중에는 다른 단어들보다 자주 쓰이는 ‘고빈도 단어’가 있다. 동형이의어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언어생활에서 표기가 같은 단어들끼리 사용 빈도를 비교해 보면 그중에 다른 단어들보다 사용 빈도가 높은 고빈도 단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독자가 동형이의어를 읽으면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를 떠올릴 가능성이 높고, 의미 확정을 위해 그것이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부터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독자가 떠올린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독자는 그 동형이의어 중에서 다른 단어를 떠올린 후 그 단어의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 확인한다.

지문 적중

루텔과 언라우 모형은 의미 구성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독자 요인과 환경 요인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 중 독자 요인은 독자 개인과 관련된 요인들로,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로 나뉜다. 전자는 어휘 지식이나 독서 전략, 독서 상황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된 이성적인 요인들을 말하며, 후자는 독서 동기나 독서 태도, 내용에 대한 감상과 같은 정서적 요인들을 말한다. 한편, 환경 요인은 사회·문화적 요소와 교육자 요소로 구분된다. 전자는 독자가 속한 공동체의 문화나 해당 공동체에서 중요시되는 가치 등을 말하며, 독자의 인식 기저에서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에 영향을 끼친다. 후자는 독서 행위를 돕는 교육자로서, 독서 과정에서 독자와 상호 작용함으로써 의미 구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루

『이매진』 3호 123쪽_4주차 DAY 5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인지 과정 모형은 독서 과정에서의 의미 구성이 언어 단위에 따라 단선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즉, 문자나 단어와 같은 작은 언어 단위의 해독으로부터 시작해 문장, 문단과 같은 큰 언어 단위의 해석으로 차례차례 이행되면서 의미가 구성된다. 따라서 음운론 등의 국어 규칙을 터득한 독자는 문자 판독을 통해 자동적으로 글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텍스트 자체가 독자의 독서 동기나 태도, 독서 행위에 대한 자기 인식 등의 요소들보다도 의미 구성에 더 중요하다고 본다.

독서: 사회 [4~9] 「법 모델과 임대차 보호법」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나)

재산 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서는,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예컨대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이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다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의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종료 예정일부터 최단 존속 기간 만큼 임대차가 연장된다.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인정된다. 단, 임대인은 이 법들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갱신 거절 사유의 예로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매진』 1호 78쪽_3주차 DAY 2

민법으로 보호받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인 재산권에는 물권과 채권 등이 있다. 그중 물권은 부동산 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화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어 계약의 내용이 계약의 존재를 모르는 제3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민법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이 성립하려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로 공시되어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은 공시되지 않아도 성립하며, 대항력이 없다.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은 대표적인 채권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목적물에 거주한 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지급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임차인은 그 제3자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 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인데, 특별법은 일반법인 민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해당 법은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임차권의 대항력을 보장한다. 이때 대항 요건은 임대 목적물인 주택에 거주하는 것과 관공서에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이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바뀌었다더라도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매진』 2호 110쪽_4주차 DAY 2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 각 당사자에게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킨다. 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채무는 그 행위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말하며 계약의 내용은 실현 가능해야 한다.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을 민법상 ‘불능’이라 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나 노력이 ㉡ 드는 경우도 포함한다.

지문 적중

독서: 사회 [4~9] 「법 모델과 임대차 보호법」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매진』 1호 79쪽_3주차 DAY 2

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은 자신이 소유한 A 주택과 B 상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A 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으로 정했으나 B 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했다. B 상가의 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한다.

갑이 위의 두 법에 규정된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을에게 A 주택과 B 상가에 대한 임대차 종료료를 주장했으나 을은 갱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갑은 위 기간 내에 갱신을 거절하고 을에게 A 주택과 B 상가를 반환하라고 함으로써 분쟁이 생겼다. 을은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갑이 이를 거절하여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① 갑이 A 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 갑과 을 간의 A 주택 임대차는 갱신되지 않겠군.
- ② 을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의무 규정이 적용된 것이겠군.
- ③ 을은 갑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 없겠군.
- ④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이 B 상가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가 갑에게 보장된 것이겠군.
- ⑤ 갑과 을 간의 A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겠군.

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2023년 5월 10일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은 서울에 위치한 주택 X에 대해 보증금 1억 5천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일주일 뒤 을은 X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전입 신고를 했다. 한편 갑은 채권자 병에게 4천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2023년 5월 20일 X에 4천만 원의 저당권 등기가 설정되었다. 이후 X는 경매에 넘어가 1억 원에 낙찰되었다. 단, X에 대해 다른 권리를 가진 자와 세금 및 기타 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

- ① 을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23년 5월 20일 이전에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이 보증금을 보호하기에 유리하겠군.
- ② 을은 소액 임차인이므로 저당권 등기 설정일보다 확정 일자가 늦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여 5,5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겠군.
- ③ 을이 2023년 5월 20일 이전에 확정 일자를 받았더라도 저당권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병은 저당권이 설정된 금액을 경매 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겠군.
- ④ 을이 2023년 5월 20일 이후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서 병이 저당권이 설정된 금액을 경매 대금에서 변제받기 전에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겠군.
- ⑤ 을이 X에 저당권 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몰랐던 것이 밝혀진다면, 을이 2023년 5월 30일에 확정 일자를 받았더라도 병은 을에게 저당권으로 인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겠군.

<보기> 적중

독서: 기술 [10~13] 「수소 운반체를 활용한 수소 저장 및 운송 방식」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청정 에너지원 중 하나인 수소는 생산, 저장, 운송, 추출, 활용 등 전체 과정에서의 친환경성과 관련하여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재생 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면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생산된 수소 기체는 부피가 크고 폭발 위험성이 있어 저장 및 운송이 어렵다. 부피를 크게 ㉠ 줄일 수 있는 액화 수소 방식이 제안되었지만, 저장 및 운송 시 액화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극저온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액상 유기 화합물 또는 액화 암모니아와 같은 수소 운반체를 활용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액상 유기 화합물을 이용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에는 톨루엔과 ㉡ 메틸사이클로헥세인(MCH)이라는 두 화합물 간의 상호 전환 반응이 주로 사용된다. 이는 톨루엔에 수소가 흡수되고 역으로 MCH가 톨루엔과 수소로 변환되는 반응을 이용하는 것이다. 톨루엔 분자 하나에 세 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할 때 각각의 수소 분자가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두 개씩 ㉢ 만들며 MCH 분자 하나가 생성된다. MCH는 취급 안전성 및 독성이 휘발유와 유사하므로 석유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MCH가 액체이므로 증발 기체 발생으로 인한 누출 위험이 거의 없다. 하지만 톨루엔과 MCH의 상호 전환을 통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이 반복되면서 화합물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

(중략)

수소의 대표적 활용법인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장치로, 산화 극, 환원 극, 전해질, 도선으로 구성된다. 산화 극에서는 공급된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전자는 도선을 통해 환원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기를 생산한다. 그리고 환원 극에서는 공급된 산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를 만나 물을 생성한다. 이 외의 반응은 거의 ㉣ 일어나지 않으므로 친환경적이다.

『이매진』 1호 112쪽_4주차 DAY 4

대표적인 친환경 연료인 수소 연료는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화석 연료의 대체재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을 이용해 수소를 얻는 광전기 화학 전지의 연구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광전기 화학 전지는 반도체로 만들어진 작동 전극과 도체로 만들어진 상대 전극이 물에 담겨 전선으로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내의 전자는 낮은 에너지 범위인 원자가띠 또는 높은 에너지 범위인 전도띠의 에너지만 가질 수 있으며 락스에는 원자가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때 단일 반도체에서 원자가띠의 최대 에너지와 전도띠의 최소 에너지의 차이를 락스라고 한다. 작동 전극에 락스보다 높은 빛이 조사되면 전자는 락스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 전도띠의 에너지를 갖게 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 전자가 된다. 자유 전자는 전선을 따라 상대 전극으로 이동한 뒤 방출되면서 락스로부터 흡수한 에너지를 물 분자에 전달해 물 분자를 산소와 수소로 분해시킨다.

『이매진』 4호 106쪽_4주차 DAY 3

연료 전지는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 장치이다. 연료 전지는 산화 전극과 환원 전극, 두 전극 사이에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도선을 포함하는 외부 회로 등으로 구성된다. 이때 산화 반응은 분자나 원자 등이 전자를 잃는 반응을, 환원 반응은 전자를 얻는 반응을 말한다.

대표적인 연료 전지에는 ㉤ 수소 전지가 있다. 수소 전지가 작동할 때 산화 전극에는 연료인 수소가 공급되고, 환원 전극에는 공기 중의 산소가 공급된다. 이때 수소는 산화 전극에 주입된 촉매의 작용에 의해 전자를 잃으면서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된다. 수소 전지의 전해질은 주로 고체 고분자 막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막은 이온의 이동은 허용하되 전자의 이동은 차단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막의 특성과 두 전극 사이의 전압 차이에 의해, 수소 이온과 전자는 각각 전해질과 외부 회로의 도선을 거쳐 환원 전극으로 이동한 다음 산소와 반응하여 물을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전자가 도선을 통해 흐르면서 전류가 발생한다.

수소 전지는 수소와 산소가 공급되는 한 지속적·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부산물로 생성되는 물이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반면 물로부터 수소를 얻는 과정의 에너지 효율이 낮고, 수소의 산화 반응에 촉매로 쓰이는 백금 같은 물질이 희소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수소는 부피 대비 에너지 밀도가 낮아 저장·운반하려면 고압 압축이나 액화를 거쳐야 하므로 전기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

독서: 기술 [10~13] 「수소 운반체를 활용한 수소 저장 및 운송 방식」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매진』 1호 112쪽_4주차 DAY 4

10.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재생 에너지는 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 ② MCH는 휘발유와 유사한 취급 안전성을 갖는다.
- ③ 광분해 방식으로 암모니아를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로 분해할 수 있다.
- ④ 수소 연료 전지에 공급되는 물질은 수소와 산소이다.
- ⑤ 수소 연료 전지에서 수소 이온은 전자와 마찬가지로 도선을 통해 이동한다.

2. 밑줄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소 연료 이외에도 다른 친환경 연료가 존재한다.
- ② 반도체별로 서로 다른 크기의 띠를 가지고 있다.
- ③ 탄소의 원자핵은 반도체 내에서 전자와 상호 작용한다.
- ④ 작동 전극과 상대 전극은 서로 다른 물질로 만들어진다.
- ⑤ 물을 분해시키는 전자는 상대 전극에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매진』 4호 106쪽_4주차 DAY 3

1.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수소 전지는 화학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전기 에너지를 얻는다.
- ② 수소 전지를 구성하는 산화 전극과 환원 전극 사이에는 전압 차이가 있다.
- ③ 금속-공기 전지는 에너지 생산 효율이 높아 기존의 연료 전지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④ 전지를 구성하는 두 전극 사이에서 이온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액체뿐만 아니라 고체가 사용되기도 한다.
- ⑤ 고체 상태의 아연과 압축되지 않은 기체 상태의 수소가 같은 부피만큼 있다면 아연이 지닌 에너지가 더 크다.

선지 적중

독서: 인문 [14~17]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매진』 4호 72쪽_3주차 DAY 1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간중심주의와 달리,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은 인간을 정보적 존재의 하나로 간주한다.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가령 내가 빵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빵을 산다'는 정보이다. 이렇듯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되는 정보적 존재를 플로리디는 '인포그'라고 부른다. 인포그는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다. 상호 연결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행위자 즉 주체인 동시에 다른 정보에 의해 변화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내가 친구에게 빵이 맛있다고 말해서 친구가 그 빵을 샀다면, 나의 음성 정보는 그 빵이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에 의해 촉발된 대상이자 친구의 행위라는 정보를 발생시킨 주체이다. 플로리디는 인간을 정보적 상호 연결에 의해 구현되는 인포그의 하나로 본다는 점에서, 인간을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는 인간중심주의와 대비된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윤리적 견해의 차이로 이어진다. 존재함 즉 '있음'을 '경험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하는 경험주의와 달리, 인포그의 '있음'은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된다. 그러한 연결 속에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인포그들은,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나름의 권리를 가진다고 플로리디는 주장한다. 자유 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 행위자로 인정하는 칸트 윤리학과 생명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 중심 윤리학은 도덕적 주체 및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에서 인공물을 제외하지만, 플로리디는 존재하는 것의 내재적 가치를 '있음'에서 찾음으로써 인공물로부터 그 범위를 확장한다.

17. <보기>는 플로리디와 학생이 나눈 가상의 대화이다. 밑줄을 참고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학생: 선생님의 강연을 칸트와 비교하여 듣고, '책임의 소재'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자동으로 작동하며 작동 규칙도 변경할 수 있지만, 자유 의지는 없는 인공 지능 교통 통제 시스템(AI-TCS)이 교통 혼란을 일으켰다고 해 보죠. 이 경우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플로리디: 칸트에 따르면 자유 의지가 있음은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학생이 예로 든 시스템이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나는 칸트와 달리 그 시스템이 도덕 행위자에 포함될 뿐 아니라 도덕적 옳고 그름까지 평가될 수 있다고 봐요. 이처럼 정보화 사회에서는 책임을 질 수 없는 도덕 행위자가 늘어나는 한편,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게 된 인간은 예상되는 결과를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전체 인포스피어의 책임이 그만큼 커지죠. 인포스피어의 책임은 모든 인포그를 아우르는 인간의 나쁜 '호모포이테티쿠스'라 부릅니다.

학생: 선생님께서는 ㉠ 보시는군요.

(가)

대부분의 근대 철학자들은 합리적인 인간인 주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재를 선입견 없이 관찰하여 지식을 도출한다고 믿었다. 이들에 따르면 지식은 실재에 토대를 ㉠ 둔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보편성을 갖는다.

반면 임마누엘 칸트는 주체가 실재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주체가 인식하는 대상은 객관적 실재가 아니라, 인식을 통해 구성된 객체이다. 주체의 인식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틀인 ㉡ 선형적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선형적 형식은 경험 이전에 본래 주어져 있는 '범주'들로 구성된 것이다. 범주에는 분량, 인과, 양상의 범주 등

(중략)

객체가 실재와 무관하게 주체에 의해 구성된 대상이라면 객체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보편성을 가질 수 있을까? 칸트는 선형적 형식이 모든 주체의 이성에서 동일하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체들이 인식하는 세계는 인과율을 비롯한 법칙들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운동하는 세계로 서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 주체가 이러한 세계를 이루는 객체를 탐구하여 구성한 지식은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의 보편성이 인간의 정신에 근거를 둔다고 규정한 칸트의 사상은 지식을 객관적 실재와 무관한 구성물로 간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나)

현대 철학자 브뤼노 라투르는 지식이 실재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된 것이라는 칸트의 입장에 동의했으나, 지식을 구성하는 행위자는 인간만이 아니라고 보았다. 먼저 그는 행위를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이성을 갖지 않은 객체도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면 행위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속 방지턱은 자동차들의 속력을 늦춘다는 점에서 행위자이다. 라투르는 인간과 비인간을 주체와 객체로 파악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거부하고 행위자를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로 구분하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라투르는 지식이 여러 행위자들로 이루어진 연결망이라고 말하며, 지식의 형성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먼저 인간은 지식의 대상을 기존의 지식과 정합적으로 엮어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는데, 이는 인간 행위자, 그리고 지식의 대상과 기존의 지식이라는 비인간 행위자로 구성된 연결망에 해당한다.

지문 적중

문학: 갈래 복합 [22~26] 「동유가」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매진』 3호 46쪽_1주차 DAY 3

한참을 구경하고 도로 내려 금강문에
남여 타고 절에 와서 점심을 먹은 후에
만물초 가는 길이 온정을 지난다기에
극락고개 넘어서서 오 리 남짓 가니
주막집 바로 곁에 우물집 지었기에
문 열고 구경하니 상하탕(上下湯)이 늘어 놓여
넓적한 돌 네모지게 두 군데 똑같이 짜고
물빛은 흐릿하고 미지근하다 하네
보슬비 계속 내려 주점에서 머물고
이십일 일 조반 후에 날 흐리고 안개 덮여
만물초 구경하려 준비하고 내려가니
지로승(指路僧)과 주막 주인 붙들고 만류하되
㉠ 만물초 가는 길이 칠십 리 왕복이요
청명한 일기에도 구름 끼면 못 보는데
하물며 비 오는 날 지척을 분간하랴
미끄러운 돌사다리 천신만고 들어가서
산 밑만 겨우 보면 분하지 않으리오
들으니 그럴듯하고 일행들도 옳다 하여
봉래의 후약을 만물초에 남겨 두고
행장을 다시 차려 총석으로 향할 제
금강 내외산을 이곳에서 작별하니
만 이천 봉 빛이 눈앞에 역력하다

- 홍정유, 「동유가」 -

주자와 우암 선생 영당(影堂)이 있는데
갈 길이 바빠서 참배를 못 하니
현인을 사모하는 후학 마음 섭섭하기 가이없다
점심 먹고 일어서니 날씨가 서늘하다
당아지고개 넘어 너분들 주막 지나니
길가의 비석 하나 우습고 신기하다
좌수 헌 아무개의 선좌비(善佐碑)라 하더라
칠송정 지나올 때 큰 소나무 하나 서 있는데
꿇기는 두어 아름 높이는 여남은 길 되더라
마침 늙은 어부 하나 지나가다 하는 말이
“전하는 말에 저 소나무가 병자호란 겪었다네.”
들으니 신기하여 두 번 세 번 돌아보고
고개 둘 또 넘어서 회양부에 들어가니
해는 아직 덜 저물고 삼백팔십 리 왔네
주막에 들어앉아 겹옷을 내어 입고
하인을 보내어 관아에 알리라 하고
차차 나아가서 삼문 앞에 다다르니
통인이 벌써 나와 어서 들어오라 재촉하네
동헌으로 바로 가니 저녁밥이 준비되어 있구나
진외종대부* 먼저 뵈고 일어나서
책실에 먼저 오니 사람마다 다 반기네
저녁밥 먹은 후에 장청*에서 잠을 자다

- 홍정유, 「동유가」 -

작품 적중

문학: 갈래 복합 [22~26] 「동유가」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서 덕성을 발견하여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② 계절의 변화를 제시하여 삶에 대한 관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자연물의 모습에 주목하여 자연에 대한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자연물 간의 조화로움에 빗대어 현실에서 겪는 삶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⑤ 자연의 극한적 상황을 제시하여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선지 적중

『이매진』 3호 46쪽_1주차 DAY 3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사적 인물을 호명하여 회고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②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지상을 전개한다.
 ③ 의인화된 자연물을 제시하여 화자의 감정을 부각한다.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화자의 달라진 처지를 강조한다.
 ⑤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자연에서 얻은 교훈을 전달한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려는 기행 주체는 여행 장소의 풍경이나 풍속, 사람들과의 만남 등을 체험하면서 감흥을 얻는다. (가)와 (나)의 기행 주체는 여정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을 일기 형식을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다. (가)에는 여행 장소에서의 체험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기록하려는, (나)에는 여행 장소에서 관심을 기울인 대상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려는 양상이 주로 나타난다.

- ① (가)는 '점심을 먹은 후'에 '극락고개'를 넘어 '오 리 남짓' 가는 것으로 표현한 데서, 시간의 순서에 따른 장소 이동을 중심으로 기록하려는 양상이 드러나는군.
 ② (나)는 '술'의 모습을 '푸르'고 '윤택하다'고 표현한 데서, 여행 장소에서 관심을 갖게 된 대상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려는 양상이 드러나는군.
 ③ (가)는 '우물집'을 '문 열고 구경하는 데서, (나)는 '술'에 '여관을 나섰다'는 데서,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다니며 새로 얻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려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④ (가)는 '조반' 먹은 것을 '이십일 일'로, (나)는 '동해여관'으로 숙소를 정한 것을 '7월 3일(금)'으로 날짜를 밝혀 기록한 데서, 여정의 경험을 일기 형식을 사용하여 표현했음이 드러나는군.
 ⑤ (가)는 '주막 주인'이 '만류'한 일을, (나)는 '주인'이 '보름달'이라 달한 일을 기록한 데서, 여정 중의 만남에서 정보를 얻은 경험을 기억할 만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보기> 적중

선지 적중

『이매진』 3호 47쪽_1주차 DAY 3

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각각 화자가 낯선 곳에서 경험한 바를 토대로 창작된 시가이다. (가)는 화자가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의 침략에 억류된 상황에서 지은 한시로, 환경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역경을 이겨 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한편 (나)는 화자가 금강산을 유람하며 지은 기행 가사로, 전대의 작품과는 달리 유교 이념보다 여정과 전문을 자세하게 그려내는 데 치중한다.

- ① (가)에서 '눈송이'는 고국을 떠올리게 하는 자연 현상으로, 타향에서 지은 화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② (가)에서 '몸날의 기운'이 '이 몸'에 있다고 한 것은, 화자가 침략에서 풀려나 귀국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③ (가)에서 '자'와 '우암 선생 영당'을 '갈 길이 바빠서 참배를 못 했'다는 것은, 화자가 유교 이념을 따르기보다는 금강산 유람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④ (나)에서 '좌수 현 아무개'의 선좌비를 보고 '우습고 신기'하다고 한 것은, 화자가 여정 중에 발견한 사물에도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⑤ (가)에서 '이역'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화자가 경험하게 된 곳이라면, (나)에서 '풍악'은 유람의 기대감을 품은 화자가 경험하게 된 곳이라고 볼 수 있다.

문학: 고전 소설 [27~30] 「김진옥전」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1차 [28~31]

이때 유 승상이 이 말을 듣고 ㉔대경실색하여 부인과 소저와 주야 근심하여 천단다행으로 살아 돌아옴을 두 손 모아 기도 하더라. 이에 앞서 우양 공주가 김진옥이 파혼하매 형성군의 머느리 되었으니, 김진옥이 부마됨을 지극히 피함을 시기하여 항상 모해할 뜻을 두고 그옥이 틈을 엿보더니, 원수 표봉하여 사생 모함을 듣고 대회하여 병부상서 정동한 등으로 통하여 황제께 여쭙오되

“갑자년 난중에 김진옥의 아버 시광도 오랑캐와 내용하다가 성사치 못함으로 월국으로 들어가더니 지금 진옥이 월국을 치는 체하다가 월국으로 도망하여 제 아버와 동심협력하여 중국을 해코자 하오니 그 처자를 어찌 살려 두리까? 황제는 앞날을 생각하소서.”

황제 그 말을 듣고 그러할 듯한지라 즉시 유 승상을 삭탈관직 하고 진옥의 처 유 씨를 잡아다가 죽이려 하더라.

(중략)

각설, 이때 원수 수부에서 용궁 대병을 거느리고 일자 장사진을 쳐 제장을 호령하시니 선봉 장신갑이 이과이 알

“동국 용왕은 유수진을 쳇거늘 원수께서는 어떤 일이 김진옥을 쳇나니까?”

원수 웃으며 왈

“오행 중에 상국이 있으니 유수진을 치고 들면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제장이 서로 돌아보고 왈

“원수의 진법은 과연 명장이라.”

하며 칭찬하더라.

이때 원수가 군법을 정제하고 싸움을 둔우더니 ‘동국 용왕은 들어보라.’ 하며 풍운조화를 부리니 동국 용왕이 ㉕대로하여 비룡마를 타고 ㉖청전검을 들고 달려들거늘 원수가 응하여 동서남북으로 충돌하다가 용왕의 머리를 베어 들고 만군 중에 횡행하니 수중 명장이 대경실색하더라.

이때 적진 군중에서 ㉗항서를 썬 올리거늘 원수가 받은 후에 군사를 몰아 돌아오니 용왕이 대회하여 원수와 그 부친을 좌상에 앉히고 원수 공덕을 무수히 치사하시더라. 그 부친으로 서해군을 봉하시고 원수로서 동해군을 봉하시니라.

- 작자 미상, 「김진옥전」 -

“팔 세에 부모를 이별하고 선생을 만나 팔 년을 공부하옵다가 선생의 슬하를 떠난 후에 몽중에는 자로 뵈었사오니 한 번도 생면치 못하였사오니 어찌 생시에 보고 싶은 생각이 없으 리오. 선생은 바빠 돌아와 기울어진 송나라 백성을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듯이 칠 일 축수하였더니 문득 황산 도사 내려와 자리를 정함에 양사군이 선생께 재배하고 해포 그림된 정을 받거하니 도사 양사군의 손을 잡고 사랑하더라.

“무삼 일이 급하여 나를 찾았나뇨?”

한대 양사군이 답 왈

“국가 불행하여 태자 병든 바 없이 기세하였으니 어떤 일인지 몰라 선생을 청하였사오니 선생은 태자를 살려 주옵소서.”

하니 도사 소매로서 꽃 세 봉지를 내어 주며 왈

“이 꽃은 연전에 네 부채를 찾아가다 상제께 올리니 부채를 받으시고 환생조 세 봉지를 주며 네게 진하라 하시되 이때까지 전치 못하였으니 이 꽃을 가져다가 한 봉지는 입에 넣고 또 한 봉지를 머리에 바르고 또 한 봉지로는 만신을 씻으라.”

하고

“궁히 가라. 때 늦어 가고 지 늦었다.”

선생께 하직하고 왈

“다시 뵈옵수 있사오리까?”

한대 도사 왈

“팔 년 후에 다시 상봉하리라.”

하고 문득 간데없거늘 양사군이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재배 하고 돌아오니 궐내에서 곡성이 진동하더라. 들어가 황제께 뵈이니 상이 왈

“경은 어데 갔더뇨.”

하거늘 양사군이 복지 주 왈

“태자 세상을 이별하기에 선생을 찾아 천기산에 가 칠 일 재계하고 선생을 만나오니 선생이 환생조 세 봉지를 주며 왈, ‘여차여차하라.’ 하옵기 왔사오니이다.”

하며 태자의 만신을 만지며 도사 이르던 대로 쓰니 이윽고 환생이 온전한지라.

- 작자 미상, 「김진옥전」 -

문학: 고전 소설 [27~30] 「김진옥전」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앞부분 줄거리〕 진옥은 월국에 승전한 일을 황제에게 전하고 돌아오다 문득 대풍을 만나 외딴섬에 이르러 한 노인을 만나다.

그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왈

“사십 후에 한 자식을 두었다가 갑자기 난중에 잃었나이다.”

진옥이 왈

“그 자식의 이름을 아시나이까?”

노인이 답왈

“내 자식의 이름은 김진옥이거니와 화초암에서 공부하다가 이별하였더니 지금 사생존망을 모르나이다.”

하거늘 원수가 그제야 부친인 줄 알고 그 노인을 붙들고

㉠ 대성통곡 왈

“소자의 이름이 진옥이로소이다.”

하니 그 노인이 진옥이란 말을 듣고 ㉡ 대성통곡하고 기절하고 엎어지니 진옥이 눈물을 그치고 부친을 위로하며 전후사를 낱낱이 설화하더라.

그런 뒤에 배를 타고 만경창파에 떠서 고국으로 향하더니 한곳에 다다르니 바람결에 청아한 ㉢ 옥피리 소리가 들려오는 걸 보니 일위 동자가 청의를 입고 머리에

(중략)

각설, 이때 원수 수부에서 용궁 대병을 거느리고 일자 장사진을 쳐 제장을 호령하시니 선봉 장신감이 아뢰어 왈

“동국 용왕은 유수진을 쳤거늘 원수께서는 어찌 일자 장사진을 쳤나이까?”

원수 웃으며 왈

“오행 중에 상극이 있으니 유수진을 치고 들면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제장이 서로 돌아보고 왈

“원수의 진법은 과연 명장이라.”

하며 칭찬하더라.

이때 원수가 군법을 정제하고 싸움을 돋우더니 ‘동국 용왕은 들어보라.’ 하며 풍운조화를 부리니 동국 용왕이 ㉣ 대로하여 비룡마를 타고 ㉤ 청전검을 들고 달려들거늘 원수가 응하여 동서남북으로 충돌하다가 용왕의 머리를 베어 들고 만군 중에 횡행하니 수중 명장이 대경실색하더라.

이때 적진 군중에서 ㉥ 항서를 쏘 올리거늘 원수가 받은 후에 군사를 몰아 돌아오니 용왕이 대퇴하여 원수와 그 부친을 좌상에 앉히고 원수 공덕을 무수히 치사하시더라. 그 부친으로 서해군을 봉하시고 원수로서 동해군을 봉하시니라.

- 작자 미상, 「김진옥전」 -

『이매진』 3호 98쪽_3주차 DAY 4

차시 공주가 우연히 생각하되, ‘혹자 김진옥이 살아나서 돌아올까?’ 하여 이름난 복자(卜者)를 청하여 진옥의 거처 사생존망을 문복(問卜)하니, 복자가 점괘를 이윽히 궁구하다가 해득하여 왈,

“진옥이 표풍(漂風)하여 만경창파에 떠갔으나 이는 흉조(凶兆)가 아니요, 표풍하여 저의 부친을 상봉하고 명일 오시에 황성 득달할 것이오니, 옥주는 소복(小卜)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마르소서.”

공주가 차언을 듣고 정동한 등으로 더불어 이 일을 의논하고 상(上)께 품달(稟達)*하여 명일 오시 전에 유 씨를 베어라 하게 하고, 정동한 등이 강마다 사공을 불러들여 분부하여,

“대소 선척을 강 이편에 붙이고 남쪽 강변에는 일엽소선(一葉小船)도 없이 하여 행인을 건네지 말라.”

엄히 분부하니라.

차설, 김 원수가 황강을 건너 광월 지경에 이르니 홀연 몸이 곤하여 잠깐 졸더니 비몽사몽간에 유 남자가 앞에 이르러

제을 왈, “대소 선척을 강 이편에 붙이고 남쪽 강변에는 일엽소선(一葉小船)도 없이 하여 행인을 건네지 말라.”

하며 목이 베어 팔을 못하거늘, 크게 반겨 그 손을 잡고자 하다가 깨달으니 한 꿈이라. 자연 심경 담락(心驚膽落)*하여 생각하되, ‘부인이 만드시 화란(禍亂)을 당하도다.’ 하고 정히 길을 재촉하여 행하더니, 문득 ㉦ 화산 도사가 들어와 원수의 곁에 앉으며 왈,

“지금 그대의 부인 유 남자가 남의 음해(陰害)를 입어 참혹한 화를 당하리니, 급히 가 구하라.”

하더라.

〔중략 줄거리〕 김진옥은 유 남자를 구하려 가던 중, 구 년 전 자신이 출전할 때 유 남자의 복중에 있던 아들 의운과 우연히 만난다.

차시 부인이 기절함을 보고 원수가 황황히 붙들어 울며 왈, “부인아! 부인아! 김진옥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소서.”

하고, 의운이 모친을 붙들고 애통 운절하는지라. 원수가 진주 한 개를 내어 부인의 입에 넣으니, 오래지 않아 호흡을 통하여 눈을 떠 보고 아무 말도 못하거늘, 원수가 그 모자의 경상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니, 분심이 충천하여 동한 등을 잡아 죽이려 하되, 일반대관을 천자의 명령 없이 자천 처치함이 신자(臣子)의 도리 아니라, 심분 인분하고 오직 부인을 구호하여 집으로 돌아오니라.

- 작자 미상, 「김진옥전」 -

문학: 고전 소설 [27~30] 「김진옥전」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진옥전』의 영웅 서사가 보여 주는 바다 세계에서의 모험담에서는 초월적 세계에 대한 변모된 서술 양상이 드러난다. 이 작품 속 초월적 세계는 다른 영웅소설에서처럼 인간 세계와의 간극을 지닌 곳으로 인식되지만, 인간 세계에나 있을 법한 갈등이 일어나는 곳으로도 그려진다. 주인공은 초월적 존재의 요청으로 초월적 세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데, 이 과정에서 초월적 세계의 존재에게 우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약속된 보상을 받아 영웅의 자격을 증명한다.

- ① 진옥이 '청의'를 입은 '동자'와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용궁과 인세가 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진옥이 초월적 세계와의 간극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용왕이 '공을 이루라'고 한 장면에서 '적병'의 처치를 진옥에게 요청한 것을 보면, 진옥으로 하여금 인간 세계와 초월적 세계 사이에서 생긴 문제를 대신 해결하게 하려 함을 알 수 있군.
- ③ 진옥이 '지경'을 침입한 적과 '대진'하는 장면에서 '남해 용궁'에서도 '중궁'처럼 전란이 생기는 것을 보면, 초월적 세계에도 인간 세계에나 있을 법한 갈등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진옥이 '진법'을 펼치는 장면에서 용궁의 '제장'이 '명장'이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면, 진옥이 초월적 세계의 존재에게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용왕이 진옥을 '치사'하는 장면에서 진옥을 '동해군'으로 '봉하'며 '표창'하는 것을 보면, 진옥이 약속된 보상을 받아 영웅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이매진』 3호 98쪽_3주차 DAY 4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진옥전』은 영웅 소설의 전형적인 요소를 두루 갖춘 작품이다. 주인공이 부마 되기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은 공주는 주인공과 그 가족을 곤경에 빠뜨리는 적대자의 역할을 한다. 또한 주인공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초월적 능력을 지닌 조력자의 도움을 얻거나 신이한 방식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영웅 소설에서 흔히 나타나는 양상으로, 하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반영한다.

- ① 공주가 상을 움직여 유 낭자를 죽이려 하는 것으로 보아, 주인공 가족을 곤경에 빠뜨리는 적대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정동한이 남쪽 강변에 배를 없애고 행인이 강을 건너지 못하게끔 사공을 단속하는 것으로 보아, 주인공이 가족을 구하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알 수 있군.
- ③ 화산 도사가 조화를 부려 김진옥에게 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보아,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여 주인공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조력자임을 알 수 있군.
- ④ 혼절했던 유 낭자가 진주 한 개를 입에 넣자 다시 눈을 뜨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사건이 해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김진옥이 가족의 원수를 즉각 처단하지 않고 오직 유 낭자만 구하는 것으로 보아, 주인공이 천상의 뜻에 따라 정해진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군.

<보기> 적중

문학: 현대시 [31~34] 「역사」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매진』 2호 60쪽_2주차 DAY 1

(나)

1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다사롭게 타고르는 햇볕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리도 조출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다.

2

바윗돌처럼 뽕뽕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 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거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의(囚衣)를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3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 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원통 피어 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꼬옥 쥘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뱀어같이 예쁘디예쁜 손과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 신석정, 「역사」 -

(가)

1

저 허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다사롭게 타고르는 햇볕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리도 조출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다.

2

바윗돌처럼 뽕뽕 얼어붙었던 ㉠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 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거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의(囚衣)를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3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 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온통 피어 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꼬옥 쥘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뱀어같이 예쁘디예쁜 손과,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 신석정, 「역사」 -

작품 적중

문학: 현대시 [31~34] 「역사」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매진』 2호 60쪽_2주차 DAY 1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 ② 영탄적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중심 소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말을 주고받는 방식을 사용하여 의인화된 대상과의 교감을 나타내고 있다.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색채의 대비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 ② (나)는 계절의 순환에 따라 지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역동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선지 적중

33.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에서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본다는 것은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 ② 2에서 '얼어붙었던 대지'라는 부정적 여건을 극복하여 '뚫고 솟아오른'다는 것은 '달래꽃'의 강인한 모습을 드러낸다.
- ③ 2에서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찬양'한다는 것은 '역사와 힘'의 위대함을 기리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④ 3에서 '예쁘디예쁜 손'을 '항상 내가 꼬옥 쥘 수 있'다는 것은 함께하는 존재와의 결속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 ⑤ 3에서 '네 고운 청춘'을 '죽도록 사랑하'겠다는 것은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화자의 희생정신을 드러낸다.

2.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달래꽃'의 행위를 좌절시키는 공간을 상징한다.
- ② ㉡은 '개밥풀'이 돌아가고자 하는 과거의 공간을 상징한다.
- ③ ㉠은 '달래꽃'의, ㉡은 '개밥풀'의 성장을 방해하는 시련의 공간을 상징한다.
- ④ ㉠은 '달래꽃'이 극복해야 할 현실 공간을, ㉡은 '개밥풀'이 도달하고자 하는 안정된 공간을 상징한다.
- ⑤ ㉠은 '달래꽃'이 노력을 통해 목표에 이르려고 하는 공간을, ㉡은 '개밥풀'이 다른 존재에게 의지하는 공간을 상징한다.

언어: [35~36] 「단어 + 음운 - 용언의 활용과 음운 변동」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제3차 38번

이제 어간 말 모음을 가진 용언이 모음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 지를 살펴보자. 첫째, 어간 말 모음이 ‘오/우’이면 반모음 으로의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 예컨대 ‘나오+아[나와]’는 ㉠ 어간 말 모음 ‘오’가 반모음 ‘w’로 교체된 것이다. 이는 ‘쏘+아’가 음절이 줄어 ‘썩’이 될 때에도 발견된다. 둘째, 어간 말 모음이 ‘이’이면 ㉡ 어간 말 모음 ‘이’가 반모음 ‘j’로 교체될 수 있다. 이는 ‘견디+어’의 음절이 줄어 ‘견더’가 되는 과정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견디+어[견디어]’는 ‘[견디어]’처럼 ㉢ 어미 ‘어’에 반모음 ‘j’가 첨가되는 현상도 보인다. 그러나 ‘ㅅ’ 불규칙 용언의 활용에서는 ‘(밥을) 짓+어[지어]’처럼 반모음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셋째, 어간 말 모음이 ‘아/어’이면 ㉣ 동일 모음 탈락이 일어난다. 일례로 ‘사다’의 활용형인 ‘사+아[사]’에서는 동일한 모음 중 하나가 탈락한다. 넷째, 어간 말 모음이 ‘으’이면 ㉤ 어간 말 모음 ‘으’가 탈락한다. 이는 ‘쓰다’의 활용형인 ‘쓰+어[써]’에서 확인된다. 위의 경우들에서, ‘j’ 반모음 첨가를 제외하고는 음운 변동의 결과가 모두 표기에 반영된다.

38.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국어에서는 단모음과 단모음을 연속하여 발음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이러한 환경을 피하기 위해 교체, 탈락, 첨가와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음절의 수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를 고려하여 [자료]의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과 음절 수의 변화를 설명해 보자.

[자료]

- 아이들이 힘을 ㉠ 모아서[모아서] 모래성을 쌓았다.
- 너희가 가져온 물건은 한쪽에 잘 정리해 ㉡ 켜[켜].
- 하천 옆으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 피어[피어] 있다.
- 자신의 일은 스스로 책임을 ㉣ 져야만[져야만] 한다.
- 잡채는 손이 많이 ㉤ 가서[가서] 하기 힘든 음식이다.

- ① ㉠은 어간 말 ‘ㄹ’이 ‘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 것으로, 음절의 수가 줄어들었다.
- ② ㉡은 어간 말 ‘ㄷ’이 ‘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반모음 ‘w’로 교체된 것으로, 음절의 수가 줄어들었다.
- ③ ㉢은 어간 말 ‘ㅍ’과 ‘ㅍ’로 시작하는 어미 사이에 반모음 ‘j’가 첨가된 것으로, 음절의 수는 변함이 없다.
- ④ ㉣은 어간 말 ‘ㅈ’이 ‘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반모음 ‘j’로 교체된 후 탈락한 것으로, 음절의 수는 변함이 없다.
- ⑤ ㉤은 어간 말 ‘ㅌ’과 ‘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동일한 모음 중 하나가 탈락한 것으로, 음절의 수가 줄어들었다.

내용 적중

언어: [35~36] 「단어 + 음운 - 용언의 활용과 음운 변동」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상상국어 시즌2 모의고사 제2차 38번

36. 다음은 학생이 '음운 변동'을 중심으로 [A]를 요약한 것이다.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운 변동	활용 사례
㉠	나오 + 아 → 나와
㉡	견디 + 어 → 견디어 → 견뎌
㉢	견디 + 어 → 견디어 [견디어/견디어] -----
㉣	사 + 아 → 사
㉤	쓰 + 어 → 써

※주의
짓 + 어
↓
지어 [지어/지어]

- ① '다리를' 파서, '꽃을' 봐서'는 모두 ㉠의 사례로 추가할 수 있군.
- ② '회사에' 다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는 모두 ㉡의 사례로 추가할 수 있군.
- ③ '어려움을' 버티어'는 '두 점을' 이어'와 달리 ㉢의 사례로 추가할 수 있군.
- ④ '잘못을' 나무라서'는 '유형을' 따라서'와 달리 ㉣의 사례로 추가할 수 있군.
- ⑤ '김치를' 담가, '돈을' 모아'는 모두 ㉤의 사례로 추가할 수 있군.

38. 다음은 용언의 활용과 관련한 수업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오늘은 용언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시다. 용언 어간에 어미가 결합될 때, 어간과 어미가 일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환경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자를 규칙 활용, 후자를 불규칙 활용이라고 해요. 불규칙 활용에는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과 어미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모두 달라지는 것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어요.

학생: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그렇다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달라지면 모두 불규칙 활용인가요?

선생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달라지더라도 그 현상을 일정한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규칙 활용이에요. 그럼 다음 ㉠~㉣의 활용 양상을 설명해 볼까요?

- | | |
|-----------------|-----------------|
| ㉠ 알- + -니 → 아니 | ㉡ 파랗- + -아 → 파래 |
| ㉢ 하- + -아 → 하여 | ㉣ 따르- + -아 → 따라 |
| ㉤ 두르- + -어 → 둘러 | |

학생: _____ [A]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은 'ㄷ' 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규칙 활용입니다.
- ② ㉡은 'ㅎ' 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규칙 활용입니다.
- ③ ㉢은 반모음 첨가로 설명할 수 있는 규칙 활용입니다.
- ④ ㉣은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간 불규칙 활용입니다.
- ⑤ ㉤은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미 불규칙 활용입니다.

선지 적중

언어: [35~36] 「단어 + 음운 - 용언의 활용과 음운 변동」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6 상상국어 N제 언어와 매체 16일차 36번

국어의 용언은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다양하게 활용한다. 용언의 활용형은 원칙적으로 어간과 어미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그런데 용언이 활용할 때에는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한다. 예컨대 ‘쌓다’는 ‘쌓+고[싸코]’에서 거센소리되기, ‘쌓+아[싸아]’에서 ‘ㅎ’ 탈락, ‘쌓+는[싼는]’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적용되더라도 이들 음운 변동 결과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날다’의 경우에는 ‘날+고[날고]’, ‘날+아[나라]’, ‘날+니[나니]’로 활용하는데, ‘ㄹ’ 탈락이 일어날 때의 결과는 표기에 반영된다.

3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용언이 불규칙 활용해도 어간, 어미의 원래 형태대로 적는다.
- ② 용언의 어간이 여러 어미와 결합할 때 한 가지 음운 변동만 일어난다.
- ③ ‘(문제를) 푸니’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지만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 ④ ‘본떠’는 ‘달아서’와 달리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⑤ ‘(정상에) 이르다’와 ‘(주의 사항을) 이르다’의 활용은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용언이 활용할 때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그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한다. 예컨대 ‘아프다’의 활용 정보는 ‘아파[아파], 아프니[아프니]’처럼 제시되는데, 이때 ‘아파’는 ‘아프다’의 어간 [A] ‘아프-’가 어미 ‘-아’와 결합할 때 ‘-’ 탈락이 일어나 ‘아파’로 실현된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된 것이다. 이와 달리 ‘홀다’의 경우는 ‘홀어[호터], 홀으니[호트니], 홀는[혼는]’이 활용 정보에 제시되지만, ‘-는’과 결합한 경우 음운 변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표기에 반영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6.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국어사전의 표제어와 활용 정보

㉠ 뜨다	활용	뜨, 뜨니, ...
㉡ 알다	활용	알아, <u>아니</u> , 아오, ...
㉢ 날다	활용	날아, <u>날으니</u> , 날는, ...
㉣ 뵈다	활용	뵈어, <u>뵈으니</u> , <u>뵈는</u> , ...
㉤ 달다	활용	달아, <u>달으니</u> , 달는, <u>달소</u> , ...

- ① ㉠: 탈락이 일어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② ㉡: 탈락이 일어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③ ㉢: 첨가가 일어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④ ㉣: 교체가 일어나지만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 ⑤ ㉤: 교체와 탈락이 일어나지만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내용 적중

선지 적중

언어: [38] 「문장 - 관계 관형사절과 동격 관형사절」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38. <보기>의 ㉠,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음 두 문장에 쓰인 관형사절은 수식을 받는 명사가 '사실'이라는 점을 같지만 두 관형사절의 성격은 다르다.

- (가) 나는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나) 나는 동생이 열심히 노력한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가)는 '사실'이 관형사절의 원래 문장 '(생략된 주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의 주어에 해당하여, ㉠ 수식받는 명사가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 경우이다. 반면 (나)는 관형사절의 원래 문장 '동생이 열심히 노력하였다.'가 '사실'의 내용에 해당하여, ㉡ 수식받는 명사가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없는 경우이다.

- ① ㉠: 그들은 함께 어울렸던 기억을 더듬어 나갔다.
② ㉠: 어제 박물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모두 놀랐다.
③ ㉡: 이 손목시계는 방수가 잘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④ ㉡: 언론에서는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⑤ ㉡: 친구는 새벽마다 운동을 한 경험을 소중히 여겼다.

26 상상국어 N제 언어와 매체 21일차 39번

39. <보기>의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관형사절은 내부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관형사절 안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는 경우, 관형사절의 내용이 관형사절의 수식을 받는 체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조건	예문
관형사절 안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고, 관형사절의 내용이 수식을 받는 체언의 내용과 일치하는 문장	우리 팀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관형사절 안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고, 관형사절의 내용이 수식을 받는 체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장	㉠

- ① 중학교 때 함께 놀았던 친구들을 우연히 만났다.
② 나는 열쇠를 책상 위에 두었던 기억이 전혀 없다.
③ 그녀는 신문에 보도된 뉴스를 강력하게 부정했다.
④ 그는 우리가 먼저 상대를 공격하지는 제안을 했다.
⑤ 제가 행사에 못 가는 바람에 형이 대신 갔습니다.

내용 적중